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마태복음 강해

낙타 무릎의 제자 야고보 (마 10:2-4)

James, a Disciple Called the Camel's Knee (Matt. 10:2-4)

1. 야고보의 가족 배경과 소명

야고보란 이름은 그 당시 너무도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그의 동생은 요한, 그의 어머니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요 19:25). 야고보의 직업은 베드로와 같이 어부였습니다만 그의 집안의 사업은 고기 잡는 품꾼들을 따로 돌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한 마디로 세베대의 집안은 사회의 특권층으로 상당한 재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영향력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집안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사회적 특권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나서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막 1:19-20).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1. James' family background and calling

The name of James was very common at that time. James' father was Zebedee, his brother John, and his mother was Jesus' mother's sister (John 19:25). The occupation of James was a fisherman like Peter. The size of his family's business was quite so big that they could employ a few workers. In a word, Zebedee's family had considerable financial power as the privileged class of society. Meanwhile, it was possible that they also had a reasonable level of political influence based on financial power.

When such a family's son, James was called by Jesus, surprisingly, he left all of his property and social privilege and followed Jesus at once (Mark 1:19-20).

2. 야고보의 성격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반면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비슷하여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이들 형제는 똑같이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혈기가 많았는지 '보아너게', 즉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란 별명을 불려졌습니다(막 3:17). 혈기를 자주 부리고 불같은 성격의 야고보는 그래서 주님께 가끔씩 책망을 받곤 했습니다.

2. James' character

Peter and his brother Andrew had contrary character, while James and John had similar character. Since both, James and his brother John were equally hot-blooded, they were nicknamed 'Boanerges' in other words, sons of thunder (Mark 3:17). James

who made trouble with his hot-blooded was often blamed by Jesus.

3. 야고보의 성숙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야고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그러나 그는 후일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도 힘썼던 제자였고 열 두 제자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였다"

그래서 야고보에게는 '야대 무릎의 제자. 낙타 무릎의 제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철저히 신앙훈련을 했던 제자,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갔던 제자가 바로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4. 그의 사역과 죽음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중추적인 제자였습니다. 아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유독 이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행 12:1-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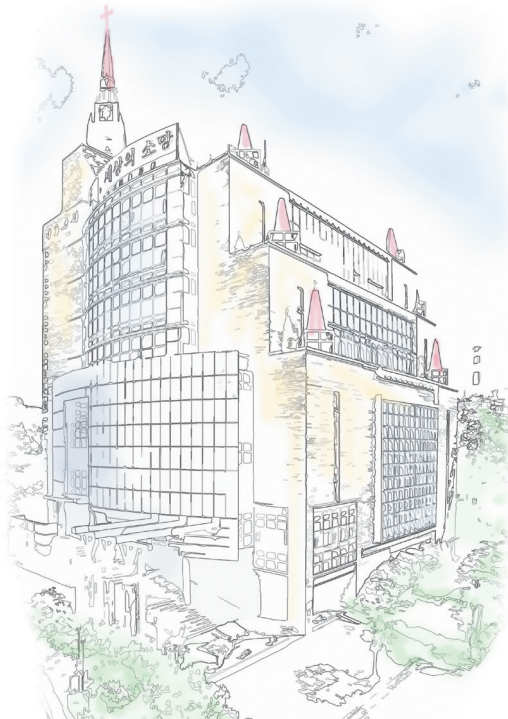
야고보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그 많은 특권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는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계십니까?

My beloved Christians,

James resolutely gave up his many privileges and followed Jesus Christ. Can we fully follow Jesus without hesitation?

Though James had a characteristic faults, through prayer he became the best disciple and was similar to Jesus Christ. Do you deeply meet Jesus in prayer?



2013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개강

9월 2일(월)~11월 10일(주) / 10주간

서울교회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을 위한 2013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일정이 확정되어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이번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기간은 9월 2일(월)~11월 10일(주)까지 10주간 계속될 예정이다. 각 과정별 강의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수강료 : 과목당 10,000 원)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빌립보서 (10주)	월, 오전 10:00-11:00	정수길 목사	602호
말라기 (10주)	금, 오전 6:00-7:00	서명철 목사	602호
성령통독반 (10주)	목, 오전 10:30-12:00	유문건 목사	602호
교사양성반 (10주)	주일, 오후 3:20-4:2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 양성반 (10주)	주일, 오후 3:20-4:20	교역자 전체	607호
주부대학 (10주)	화, 오전 10:30-오후 12:00	한상은 목사	802호
살롬경로대학 (10주)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전도학교 (12주)	주일, 오후 2:00- 3:50	배경애 전도사	701호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30-3:00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6주)	주일, 오후 3:30-4:30	한상은 목사	802호
수화교실 초급반(16주) 중급반(16주)	주일, 오후 1:00-1:50	임규현 목사	609호(초급) 904호(중급)

제4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개강

9월 2일(월)~11월 4일(월) / 10주간

제4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개척교회 비전수립과 목회전략'을 주제로 9월 2일(월)부터 11월 4일(월)까지 10주간 열린다.

1교시는 김정우 교수(총신대 구약학)의 율기 강해를, 2교시는 '개척교회 비전수립과 목회전략'이라는 주제에 맞게 각 시간마다 강사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 바란다.

주	월일	1교시	2교시	강사
1	9월 2일	율기 강해 김정우 교수 (총신대 구약학)	개척교회의 예배와 설교	박노철 목사(서울교회)
2	9월 9일		개척교회의 목회 전략	리용주 목사(안산 보라매교회)
3	9월 16일		개척교회와 전도 / 선교	이동석 목사(목동 능력성결교회)
4	9월 23일		개척교회와 장년 교육	박찬민 목사(양주 명성교회)
5	9월 30일		개척교회의 비전 수립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6	10월 7일		개척교회와 교회학교	김인환 목사(광교 지구촌교회)
7	10월 14일		개척교회와 리더십 개발	윤마태 목사(천안 서부교회)
8	10월 21일		개척교회와 전인처유목회	김예식 목사(예심교회)
9	10월 28일		개척교회와 지역공동체	이철호 목사(부평 강성교회)
10	11월 4일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개척	김형국 목사(나들목교회)

8월 학습·세례식 거행

우리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25일 주일 1,2,3부 예배 시 2013년 네번째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금번 세례/입교/개종/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세례자> 공서연, 김규리2, 김욱, 김원욱, 김지훈6, 김상민1, 김세찬, 류한희, 민봉임, 신주현2, 위대영, 안소연, 홍영희2, 최지훈2 계 14명

<입교자> 김영빈2, 김신타, 배상은1, 박혜나, 서경미, 서경지, 이예나1, 오형석, 오상협, 추창대 계 10명

<개종자> 강명석, 이미숙 계 2명

<학습자> 고민정1, 김영옥1, 김수경2, 박유희, 원대환, 양은지, 이해령, 장윤지, 주하민 계 9명

<유아세례자> 권하울, 김재민2, 유서연, 이아인, 최아현, 최지성1 계 6명
총 41명

고등부 학부모기도회

고등부에서는 2009년 3월 8일(주)부터 시작한 이래 한 주도 쉬지 않고 주일 2부 예배가 끝난 후 12시 40분부터 시작하여 오후 1시 20분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504호에서 개최하고 있다.

천세종 목사(고등부지도)의 말씀선포와 더불어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시작으로 다음세대 주역인 서울교회 교육부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 시 간 : 주일 12:40 ~ 1:20
- 인 도 : 천세종 목사(고등부 지도)
- 참석대상 : 고등부 자녀를 둔 학부모
- 장 소 : 504호 고등부 교사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00)

(문 99) 사무엘하 24:24에서 다윗이 '은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1:25에서는 '다윗은 그 자리에서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답) 삼하24:24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다윗왕이 아라우나(또는 오르난으로도 읽힘)에게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타작마당은 보통30 또는 40 피트보다 넓지 않은 적당한 영역이었습니다. 두 마리의 소와 타작마당의 시장 가격은 은50세겔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상21:25에 의하면 금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었다 했으니 이는 은50세겔의 180배가 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나 역대상은 오르난이 다윗에게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따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겠다 했으나 다윗왕은 오르난에게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wayyittenbammaqom) 라는 말속에는 단순한 타작마당보다 살 것을 약속하고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금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어' 다른 것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전 5세기나 고대의 어느 시대에도 타작마당 값이 금 600세겔이나 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오르난이 소유했던 땅은 아마도 모리아 산 전체였을 것입니다.

길이가 1600피트나 되는 고산지대인 모리아 산은 부동산 값으로 쳐도 상당한 곳으로 금600세겔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금50세겔은 은600세겔과 같다고 하고 금과 은이 바뀐 것으로 읽으려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필사자의 실수로 해석하려 하는 이가 있으나 대체로 은50세겔은 타작마당과 소의 값이라면 금600세겔은 모리아 산 전체의 값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계속)

2013 터키 성지순례 참가자 교육시작

2013 터키 성지순례 참가자 교육이 오늘 찬양예배를 마친 후 501호에서 시작된다. 교육은 박노철 담임목사가 담당하며, 4주에 걸쳐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진행된다. 성지순례팀은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도바울의 선교여행지와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 밧모섬 등을 순례하게 된다. 성지순례 참가자들은 모든 교육에 반드시 다 참석해야만 하며, 성지순례에 참석하지 못해도 관심있는 분들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다.

- 1주(9/1) 성지 순례의 목적과 준비 그리고 터키
- 2주(9/8) 터키와 이스탄불 그리고 갑바도기아
- 3주(9/15) 바울의 3차 세계 선교여행
- 4주(9/22) 콘야 안탈리아와 소아시아 7교회

2013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입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는 성경통독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시며, 치유하시고, 힘주시며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눌 성경통독반이 9월 5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성경통독반에서는 1시간 30분동안,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골로새서 까지 함께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눌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기 보다는, 성경말씀을 “직접 소리내어 읽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직접 내 입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성도들은 모두 오셔서, 낯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유문건 목사 (열린 프로그램담당)

서울 음악교실로 오세요

9월8일 오후 1시30분 601호에서 하나님을 즐거워 찬양 드리고자 하는 성도님이시면 누구나 초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이사야43장21) 서울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드리고자 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서울 음악교실”이라는 특색 있는 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두 번으로 나누어 열리는 음악교실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 찬양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성도님이시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음악교실에 오시면 유문건 찬양지도 목사님의 영성훈련 후에 찬양을 잘 부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호흡법과 발성법을 어린 아이라도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기초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악보 읽는 법의 하나인 계명장법을 배우며 음표와 쉼표, 리듬과 박자 등 찬양에 필요한 기초 음악 이론을 고루 배웁니다. 그리고 유명 성가합창곡의 감상과 노래 부르기 등을 통해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경우 기초적인 음악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훈련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10주동안 음악교실을 담당 운영하시는 김병호 집사님, 강명신권사님, 이겸손집사님, 이경화집사님 네분께서 여러분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지극 정성으로 모실 것입니다. 서울교회 성도님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을 음악교실의 문을 활짝 열고 초대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정선 장로 (찬양위원장)

주부대학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문안 드립니다.

주부대학의 개강을 기다리고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우리교회 주부대학은 만남과 힘이 있는 공간입니다.

첫째, 김사라 권사님의 지도 하에 책을 통하여 작가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지만 영롱한 영혼을 소유하신 고 장영희 교수님의 아름다움과,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고 이태석 신부님의 사랑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이무석 의사선생님을 만날 것입니다.

둘째, 맛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주부대학에서 인기 만점 시간으로 이번 학기에는 Finger Food의 대가 이미송 권사님의 요리 시간이 있습니다. Finger Food가 궁금하세요? 매주 화요일 802호로 오시면 유리피안 요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로부터 토속적인 깊은 맛의 한국 음식을 전수받은 최춘숙 집사님의 한국요리 시연 강좌도 있습니다.

셋째, 힘이 있습니다.

브런치콘서트에 참가하여 음악과 쉼을 동시에 만날 것입니다.

매년 바자에서 뜨개질로 큰 수익을 올리는 서영희 권사님이 지도하는 수세미 뜨개질 시간도 있습니다.

또 친구박물관에서 힘을 누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주부대학은 오는 화요일(9/3 오전 10시 30분-정오, 802호)에 개강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수원 권사(주부대학 차장)

살롬경로 대학과 함께 노년을 건강하게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서 지나가고 열매를 탐스럽게 맺는 가을의 계절이 우리 곁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살롬 경로 대학 27학기를 준비하면서, 서명철 지도 목사님, 최규초 부감 집사님, 이금순 부감 권사님과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르신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1부 예배로 서명철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받습니다. 매주 마다 귀하신 분들을 초청하여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노래, 생활 체조, 종이 접기, 중국어 회화, 성경 필사 반으로 분반 활동을 하게 되며,

2부 시간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청 하였고, 특별한 연극 공연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을 단풍과 함께 옛 추억을 되돌아 보는 시간으로 남이섬으로 모시게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 까지이며, 70세 이상 교회 어르신과 이웃 주민들도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보람되고 평안히 보내시기 위한 “살롬 경로 대학”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최광성 장로 (살롬경로대학 부장)



2013 사랑의 바자를 준비하며

성도님들의 뜨거운 동참 바랍니다!



김광태 집사
(2013바자 기획부)

2013 사랑의 바자 준비팀은 작년 바자 결산보고를 검토하면서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여 3월부터 지금까지 23회에 걸쳐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거듭될 때마다 그 윤곽이 갖추어져서 금번 사랑의 바자는 아주 훌륭하게 실행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바자는 해마다 자료정리가 잘 되어 실행 사례들을 보며 기획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바자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생명의 우물파기와 1% 나눔 행사는 8층 식당 입구에 우물 형상을 만들어 그 취지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므로 전 교인이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 몇 주간 동안 알찬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입

던 옷, 쓰던 책과 장난감, 학용품 등을 모아 준비한 바자를 이미 열어 정성어린 기금을 모았습니다.

또한 3주에 걸쳐 실시된 특별 사전 주문 판매행사도 많은 분들이 바자에 도움이 되고자 특판을 통해 추석 명절 선물을 구입하셨습니다. 바자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헌옷 모으기 등 바자에 대한 동참과 이를 통한 간접적인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느 학생의 경우 우물 형상의 모금함에 붙어있는 땅에 고여 있는 물을 마시고 있는 사진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한 달 용돈을 다 모았다며 가져왔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면 헌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판매되는 물품의 좋고 싸고를 떠나, 어떠한 모습으로든 성도님들이 보여주시는 정성과 아름다운 마음만으로도 2013년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는 이미 성공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이번 사랑의 바자에 많이 동참하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찬송가작가총연합회 창립5주년 기념 제14회 찬송가 세미나

9월5일(목) 오후2시 여전도회관 14층 제2강의실 한국찬송가작가총연합회(공동회장 박정선 장로) 창립5주년 기념 제14회 찬송가 세미나가 9월5일(목) 오후2시 여전도회관 14층 제2강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예배음악의 개혁'으로 우리교회 이종운 원로목사가 강사로 선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임마누엘 찬양대 (대장:양춘경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류충기집사의 지휘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아 왜 불안하냐",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찬양하라"의 네 곡을 찬양드리며 오르간 반주에 김정형 성도, 피아노 반주에 양경실 집사, 그리고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의 협연으로 찬양드리다.

봉사자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 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관규 장로)에서는 식당과 지하 주차장에서 봉사할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9월2일(월) 한국기독교학술원 이사회에 참여하고,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창립대회에서 설교하고, Save & K. 통일을 대비한 교육계전문가포럼에 참석한다. 9월5일(목) 한국찬송가작가총연합회 제14회 세미나에서 주제강의를 한다. 9월7일(토) 한국장로교신학회와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다.
- 연주회: 4교구 박광서 집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원장) 크누아 타악기 앙상블 정기연주회 9월9일(월)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 연주회: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지휘: 송재월 집사) 9월 6일(금) 오후 7시 30분 한마음 사랑의 음악회 출연(행당동 소재 소월 아트홀)
- 주간식당봉사 : 제2권사회(9.1) 빌립선교회(9.8)
- 금주의 식사 : 교회 제공

여러분의 섬김이...

내일부터 제 44학기 목회자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아직 여름이 채 가지 않았지만 나눔의 집은 목회자들을 위해 벌써부터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복, 구두, 소형 가전 등을 나눔의 집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섬김이 누구에게나 큰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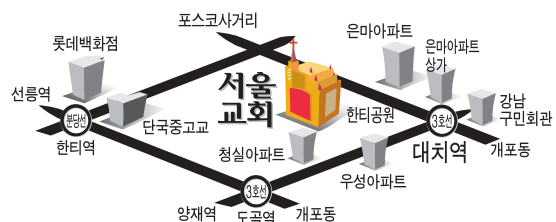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과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선한 목적들이 다 이뤄질 수 있도록
2. 사랑의 바자가 잘 준비되어서 온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밖으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3. 터키 성지순례를 위한 강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모든 순례자들의 영과 육이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